

“1980년 주남마을의 아픔, 치유·평화로 승화”

제12회 기억이 나온 인권문화제

유일 생존자 홍금숙씨 트라우마 딛고 첫 참석 ‘주목’
위령비 518m 행진·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추모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살해된 주남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제12회 기억이 나온 인권문화제’가 12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진행됐다.

기억이 나온이 축제는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염원을 담아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ㄱ’과 ‘ㄴ’을 상징화한 이름으로, 지난 2014년부터 주남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해 매년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안평환 광주시위원과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이 쉬 쉬는 주남마을’ 현수막과 노란색 풍선을 들고 마을 입구에서 518m 떨어진 5·18 위령비까지 행진했다.

이 구간에 설치된 민주로·인권로·평화

로의 비석에 적힌 시를 정광단 양3동장, 조장근 지원2동 주민자치회장, 김윤희 지원2동장이 각각 낭독했고, 유금남 전동무 형가는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살풀이를 선보였다.

이번 문화제에는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씨가 처음으로 참석해 아픔을 곁었다.

홍금숙씨는 “매년 주회 측의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올 수 없었는데 이제야 어려운 앞에 섰다”며 “위령비에 적힌 희생자 2분은 저와 같이 계엄군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분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고, 여기에 묻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풍선 날리기, 헌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민주·인권·평화 손도장 찍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렸고, ‘1980년 5월 광주, 피지도 못하고 짓밟힌 두 청년의 넋을 위로하며 작은 돌비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2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열린 ‘제12회 기억이 나온 인권 문화제’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노란 풍선을 날리고 있다.

를 세웁니다”라고 적힌 위령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인권·평화 글씨 위에 형형색색 손도장을 찍으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잘 가르치겠다”며 “주남마을 학습자료를 제작해 전국 학생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역사는 절대 후퇴하지 않고 진보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이곳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이 광주~화순 간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

에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곳이다. 5월23일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탑승자 중 단 3명만 살아남았다. 계엄군은 3명 중 상처를 입은 청년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가 살해했다.

그 후 이곳에 묻혀 있던 시신은 항쟁이 끝난 뒤 주민 신고로 발굴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도심서 칼부림한 50대 조폭 ‘징역 22년’

광주 도심 유흥가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A씨(59)와 김某的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흥기를 휘둘러 B씨(44)를 숨지게 하고, C씨(4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 초반부터 광주 광산구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신규 업자인 C씨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신규 유입된 보도방 업주들이 경쟁업자를 신고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보복 및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양형 부담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0cm에 달하는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비취볼 때 살해와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사실 자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불륜남 강간범으로 고소 30대 여성 ‘실형’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강간범으로 내몰았던 30대 아내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가 회식 이후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외도한 사실을 들키자 직장 동료인 B씨를 성범죄자로 고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노동인권센터 조사…편의점·마트 등 준수율 84.8%

광주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저임금 지급 준수율은 84.8%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6.9%보다 2.1% 낮아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21곳 사업장 중 518곳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으며 미준수 업장은 22곳(2.0%),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81곳(13.2%)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준수 이유로는 ‘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이 16곳으로 가장 높았고,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곳),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2곳)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보면 제조업(96.9%), 카페(87.0%), 마트(85.2%), 청소미화(80.5%), 경비(80.0%), 음식점(7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 10명 중 2명이 노동환경 변화를 느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환경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19.8%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등을 뽑았다.

사업주들도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및 자선(가족)이 직접 한다’,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노동자 501명 중 314명(매우 낮다 76명·15.2%, 약간 낮다 238명·47.5%)이 ‘낮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100~400원 인상(100~200원 인상 131명, 300~400원 인상 26.7%)을 선택했다.

광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창구를 개방하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만취한 50대 현직 경찰, 술집서 난동

현행범 검거…징계 여부 검토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현직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 혐의로 광주경찰청 교통과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을 찾아 “영업허가증

을 가지고 나오라”며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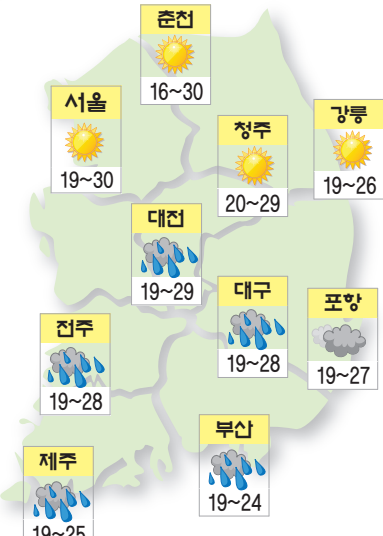
윤용성 기자 yo1404@

SOCIETY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17 달출 21:49
☁️ 예보 19:48 달진 06:24



광주	☁️	20~25
목포	☁️	19~25
여수	☁️	19~22
순천	☁️	18~23
구례	☁️	18~26
광주	☁️	19~25
해남	☁️	19~24
임도	☁️	19~24
흑산도	☁️	18~22
고흥	☁️	18~24
진도	☁️	18~24

목포	미물(고)	03:34 / 15:19
	쌀물(저)	08:49 / 20:35
여수	미물(고)	10:02 / 22:46
	쌀물(저)	04:18 / 15:59

면허증 자동 렌트카 빌린 10대

만년필 ○주운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리려던 1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1종 보통 운전면허)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소유한 혐의로 기소.

A군은 한 달여가 지난 11월3일 오후 5시15분 모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B씨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고.

정찬수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수사관서에 인계된 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동구 산수2동 마을사랑채 개소…“주민 교류 거점”

지상 4층 규모…기후위기·음식교육 등 프로그램 추진

동구 주민들의 소통·나눔의 거점 공간이 마련됐다.

광주 동구는 12일 12번째 마을사랑채인 산수2동 마을사랑채(동구 밤실로 113)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마영희 산수2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 위원장, 김순권 동구 자원봉사센터장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

플라워 힐링카페(2층), 건강센터 사업실(3층), 어린이 공부방·책방(4층)으로 조성됐다.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 중심의 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난 2월 조직된 산수2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는 오는 16일 1인 가구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 요리교실 및 음식 나눔(월 1회), 팔순잔치, 취약계층 대상 빨래방 실시 등을 추진하고 공모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광주 동구는 12일 12번째 마을사랑채인 산수2동 마을사랑채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사진은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외에도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 장소도 제공한다.

임택 정장은 “마을사랑채가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언제든지 지나가다 마을사랑채를 방문해 차,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선화 동구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란 단어를 잊고 있었다”며 “12번째 완성된 마을사랑채를 통해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동명동 마을사랑채 공사를 추진 중이

다. 동명동은 생활SOC 복합화 신청사 연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

동구는 13개 동 마을사랑채가 완성되면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교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